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2년도 제44호

### [갈곳없는 학생선수들 ②]

**“운동만도 박사” vs “공부는 학생 본분”**

이상서 연합뉴스기자

### 선수 부모 아카데미

**“공부하는 학부모=최고의 페이스메이커”**

전영지 스포츠조선 기자

### [라운드, 부정부패에 멍드는 아이들]

**“돈 봉투 의혹 야구부 감독, 상납 없으면 학생 훈련 차별”**

김경희 경기일보 기자

### 훈련비 배임 혐의 지도자 “징계 무효”

**조정부 코치 1년 6개월 징계 무효...법원 “부산시체육회 징계권 남용”**

박대현, 정형근 SPOTV 기자

### 한국 프로야구 NCD이노스

**‘음주선수 방출’ 빠른 결단, 선수 상황+사회적 인식 고려됐다**

양정웅 스타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운동만도 벅차” vs “공부는 학생 본분”

"우리 아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훈련 시간으로 꽉 차 있습니다. 녹초가 돼서 수업에 들어가면 눈뜨고 버티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반 학생과 동일한 잣대로 학력 기준에 미달하면 체육활동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이들의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서울체육중 펜싱부 자녀를 둔 학부모 김나운 씨)

"왜 아직도 학생선수들이 이렇게 죽으라고 운동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운동선수는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과거 인식이 여전히 박혀 있는 탓입니다. 왜 전국체전에서 고등부가 존재해야 합니까?" (한태룡 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지난 10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주최의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제도 개선방안' 공개 토론회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두고 격론이 오갔다. 학부모들은 "취지는 공감하나, 현장 실정과는 동떨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교육 관계자들은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아가야 한다"고 맞섰다. 지금껏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제 경기에서의 성적을 이유로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프로에 진출하지 못한 이들이 새로운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고, '제2의 삶'을 찾아 헤매는 은퇴 선수들이 늘면서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는 학생선수의 연간 대회 출전 일수를 제한하는 제도인 출석인정제 기준이 2019년 63~64일에서 2020년 20~40일, 2021년 10~30일로 매년 강화된 이유이기도 했다. 올해는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15일까지 줄었다.

일정 성적 이상을 받지 못한 학생선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최저학력제도 2024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 "학업과 운동 병행하기엔 24시간이 모자라"

고교 야구부 1학년인 아들을 둔 안진원 씨는 공개 토론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학생이 체력장에 탈락하면 수능을 치르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왜 운동하는 학생에게만 성적을 이유로 경기 출전에 대한 족쇄를 채우냐는 것이다.

안 씨는 "운동하는 학생도 공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현 제도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그는 "운동을 마친 후에 졸음이 쏟아지는 아이들을 대신해 학부모들은 (온라인수업인) '이-스쿨'을 수강하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책상 앞에 앉도록 유도하려면 채찍만 휘두를 게 아니라 적절한 당근을 쥐여주면서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씨는 "대다수 운동부 숙소에는 독서실은커녕 책상조차 찾기 힘들다"며 "학생선수의 취약과목 보강을 위한 방과 후 교사 도입이나 보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택천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회 위원장(전 수도여고 교사)은 "현 출석인정제와 최저학력제는 마치 침대보다 키가 크면 다리나 머리를 자르고, 작으면 사지를 잡아 늘여 죽인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와도 같다"며 "일괄적인 기준을 내세우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공부할지, 운동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장 계속

현실적으로 훈련과 대회 출전, 학습 등을 병행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성봉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학생선수가 소화하는 일주일 평균 훈련 시간이 27시간에 달한다"며 "이는 독일 등 스포츠 선진국보다 두 배가 넘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학생 선수 6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운동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초등학생 49.1%, 중학생이 62.3%, 고등학생이 82.8%로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높아졌다.

주말에도 운동한다고 답한 비율도 초등학생 71.8%, 중학생 80.1%, 고등학생 83.1%에 달했다.

#### ◇ "현실적 어려움 있지만 공부 놓아서는 안 돼"

한편으로는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게 어렵다는 데 공감하지만, 학생이 펜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축구부와 펜싱부, 롤러부 등 세 종목의 운동부를 운영하는 서울 중경고의 김승겸 교장은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학생선수에게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습득해 어떠한 분야에서든 행복한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교장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기 힘든 것은 유례없이 긴 훈련 시간 탓"이라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운동시간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경기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앙고 야구부 출신으로 현재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 입학 준비 중인 윤준선(20) 씨는 "대입에 합격한다면 임용시험을 준비해 교사가 되고 싶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야구를 하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아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씨는 "야구를 시작할 때는 누구나 프로도 가고 메이저리그도 진출할 수 있을 거라 믿지만 현실은 냉정하다"며 "후배들에게 '너무 일찍 공부를 놓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학습권 강화 기조가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를 나타낸다는 통계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미도달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17.7%였던 최저학력 미도달률은 2018년 14.2%, 2019년 14.5%, 2020년 13.3%, 2021년 10.9%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고교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미도달률은 2017년 22.9%에서 지난해 12.8%로 크게 낮아졌다. 박 의원은 "미도달률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선수 10명 중 1명 이상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부처는 현장의 어려움은 알지만 '학생선수는 공부해야 한다'는 기조는 변함없다고 강조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종목을 막론하고 운동으로 성공하는 학생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9명의 학생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라도 학습권 보장에 힘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엘리트 운동선수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30대 중반이면 유니폼을 벗어야 하는 현실에서 은퇴 후 다른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아예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학습권 보장이란 단순히 국·영·수 등 주요 과목 성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급우와의 어울림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다른 국가도 기본 수업에 충실히 하면서 체육 활동을 병행하기에 우리도 그런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학부모와 학생선수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출석인정제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을 내년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부하는 학부모=최고의 페이스메이커” 선수부모아카데미

“나는 너의 페이스메이커.”

29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한체대 합동강의실, 대한체육회 '선수부모 아카데미' 5회차 수업이 진행됐다. 올해 대한체육회가 처음으로 시작한 '선수부모 아카데미'는 지난 8월 경북 경주 화랑마을 1~2회차를 시작으로 서울 풋볼팬타지움서 3회차, 9월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4회차까지 총 261명의 학부모가 참가했다. 이날 5회차 수업엔 입소문을 듣고 달려온 80여 명의 서울 학부모들이 모여들었다. 늦가을 토요일 오후, 육상, 수영, 펜싱, 축구, 테니스, 당구, 사이클, 세팍타크로 등 다양한 종목의 학생선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학구열이 뜨거웠다.

선수 학부모 궁금증 해소해주는 '쌍방향' 아카데미

1부는 태릉선수촌 의무실장 출신 김은국 SRC재활병원 병원장(한체대 겸임교수, 국제빙상연맹 의료감독관)이 선수들의 기본적 재활 및 부상 관리법에 대해 강연했다. 학부모들은 '전방십자인대 파열 예방을 위해 햄스트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 '부상시 얼음요법이 중요하지만 하루 10~20분, 2~4회로 짧게 해야 효과가 있다'는 실질적 팁 등을 열심히 메모했다. ,

2부엔 운영길 한체대 사회체육학과 교수가 '운동선수의 심리적 지지'를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2015년 캐나다여자월드컵 윤덕여호(첫 16강),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김학범호(금메달)의 현장 멘탈코치로 일했던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고1' 피겨선수가 부상 후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고민하더라. '거기가 네 경기력임을 인정하는 순간 반동이 시작된다'는 말을 해줬다" "부모님들도 제발 결과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란다. 경기를 하는 이유는 연습한 걸 써보고, 더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이가 어떤 성장의 기울기를 갖고 갈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조언에 "아~" 공감의 방청객 반응이 쏟아졌다.

선수부모 아카데미의 가장 큰 특징은 '쌍방향 소통'이다. 강의는 20분으로 짧게, 현장 질의응답은 40분으로 길게 편성했다. "아이가 평발인데 깔창을 깔아줘야 할까요?" "겨울만 되면 발목을 다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 경기장에 가는 게 좋을까요, 안가는 게 좋을 까요?" 학부모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아이가 경기 전 긴장을 많이 하는데 어떤 루틴을 만들어줘야 할까요?"란 질문에 윤 교수는 "긴장의 이유는 이길지 질지 모르는데 이겨야 해서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긴장하게 된다. 루틴보다 경기 시작 후 뭘 할지 구체적 목표를 정해줘야 한다. 목표가 있으면 긴장할 틈도 없고 경기의 20%가 지나가면 긴장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조언했다.

지난 9일 울산전국체전 세팍타크로 여고부 우승팀 '신흥명가' 창문여고 학부모 삼총사, '3학년 조서현 어머니' 이복순씨, '김연우 어머니' 박미영씨, '2학년 장은서' 어머니 최미선씨도 함께 했다. "우리학교 한일현 감독님께서 정보를 주셔서 함께 신청했다. 아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최미선씨는 "아이가 척추측만증이 있는데, 서브를 넣는 '택공'이다. 편측운동이라 계속 악화될까봐 걱정"이라는 고민을 털어냈다. 김은국 원장은 "여성의 경우 중3이 되면 뼈 성장이 멈춘다. 고등학생이면 측만증 진행도 어느 정도 멈출 것"이라면서 "본인이 휴대폰에 측만증 사진을 올려놓고 스스로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최씨는 "원장님 답변에 안도가 됐다"면서 "아이의 부상, 통증, 재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배웠고, 심리적인 부분, 진로정보에 대해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다음 장 계속



## 학부모 50명 중 45명 "자녀 양육에 도움 됐다"

선수부모 아카데미의 좌장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윤 교수는 특별한 보람을 전했다. 10년 전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선수부모 아카데미를 시작했던 윤 교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 우리에게 많은 정보가 있지만 학부모는 정보가 너무 없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부모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은 아주 좋은 시도"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이 체육계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부모가 영양, 진로, 재활, 멘탈 등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선수, 지도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화려한 사업들도 많겠지만 이런 교육 분야에 예산을 더 많이 재분배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윤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학부모가 지도자와 아이를 믿는 것"이라면서 "믿음 속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갖고 정확한 도움을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과 같은 창구가 필요하다. 더 많이 요구하고 참여하고 공부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미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장은 "선수부모 아카데미는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부모님들의 열의가 대단하시다"면서 "학생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학부모다. 국가대표까지 가는 선수가 아닌 보통의 선수의 경우 학부모의 동기부여와 정보, 진로를 이끌어주는 부분은 더욱 중요하다. 향후 지속적,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2시간 반여의 열띤 '쌍방향' 강연 후 오픈채팅방을 통한 만족도 조사, 학부모들의 호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선수부모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만족한다' 항목에서 응답자 50명 중 44명이 '매우 그렇다'고 답하는 등 50명 전원이 긍정으로 답했다. '자녀양육에 도움이 됐다'는 항목에 45명의 학부모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앞으로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항목엔 무려 47명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부모는 세상 모든 선수들에게 최고의 '페이스메이커'다. '2022 선수부모 아카데미' 최종 6회차 수업은 전주로 간다. 내달 5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50분까지 전북대에서 진행된다.

# [부정부패에 멍드는 아이들] “돈봉투 의혹 야구부 감독, 상납 없으면 학생 훈련 차별”

평택시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자신에게 돈 봉투를 주지 않는 학부모들의 아이를 차별하거나 노골적으로 상납을 요구해 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는 학부모에게 돈 봉투를 받거나 코치들에게 지급된 판공비를 상납 받은 것은 물론 아이들이 마실 식음료를 더 비싼 가격임에도 아들 명의 무인상점에서 구매했다는 의혹(경기일보 10월28일·11월1일자 4·6면)을 받고 있다.

3일 복수의 학부모에 따르면 라온고 야구부 소속 한 학부모는 학교에 찾아와 돈 봉투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가 감독 A씨로부터 노골적인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지션별로 여러 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조를 짜서 지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B군만 지도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며 “나중에 감독이 평소 친한 인물들을 통해 ‘B군의 부모는 인사도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학부모는 “아이가 참다 참다 ‘감독님이 계속 나만 차별을 해서 야구를 하고 싶지 않다’며 눈물까지 흘리더라”며 “어떻게 지도자가 아이를 지도하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야구부 출신 졸업생의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도 명절이나 스승의날 같은 때에 부모들끼리 돈을 건어서 당시 학부모 회장을 통해 전달하거나 직접 돈을 전달했다”며 “전지훈련 같은 훈련 시즌에는 아이를 잘 좀 봐 달라는 의미로 몇 백만원씩을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아이와 비슷한 실력의 아이가 있었는데, 대회 전에 성의를 보이려고 해서 돈을 건넸더니 우리 아이만 경기에 나가고 그 아이는 (엔트리에서)제외됐다”고 증언했다.

학부모들은 A씨가 야구선수 출신으로, 경기도내에서 다른 고교 야구부 감독 등을 맡기도 했고, 야구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 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학부모는 “오죽했으면 아이들 사이에서 비슷한 실력인데 유독 출전을 자주 하는 아이가 있으면 ‘재네는 얼마나 (많이)준거야’라는 말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달 만남 당시 “학부모들에게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절대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한 후 이날은 전화를 꺼두고 문자 등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내 일반코치는 학교에서 징계 결정 등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 학교 현장을 방문해 관련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다”며 “학교체육소위원회를 통해 현장 및 탐문 조사 등을 하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감사관실에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감사의 개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조정부 코치 1년 6개월 징계 무효 법원 “부산시체육회 징계권 남용”

부산시체육회가 부산 D고 조정부 A코치에게 부과한 자격정지 징계가 무효 처리됐다. 재판부는 '징계권 남용'을 이유로 끝냈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지난 9월 징계 양정이 과도하게 무겁다며 징계처분 무효를 청구한 A코치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무효 판결했다.

앞서 부산시체육회는 A코치에게 훈련비 배임 혐의로 자격정지 1년 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A코치는 해당 처분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0년 10월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떤 징계처분을 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 재량에 속하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된다"면서 "경미한 사유에 가혹한 제재를 과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권 남용으로서 이번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코치의 행위 대부분이 선수의 훈련장 이동을 돕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인 지출이 반복돼 이를 보전하려는 경제적인 이유가 동기로 보인다. 징계권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부산시체육회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A코치에 대한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는 무효 처분이 됐다.

A코치는 스포티비뉴스와 통화에서 "개인이 체육회와 싸운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 "그만큼 억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 꼭 바로잡고 싶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체육회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지도자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토로할 곳이 없다. 최근 선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처우 역시 개선되고 있지만 지도자 인권과 처우 개선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십수 년째) 아무런 발전이 없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체육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도 "각 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노력이 불가피하다. 체육계 사안을 다룰 때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는 많은 체육인들의 공통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 NC '음주선수 방출' 빠른 결단, 선수 상황 + 사회적 인식 고려됐다

NC 다이노스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백업 외야수 김기환(27)을 전격 퇴단 조치했다.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강경한 결정을 내렸다.

NC는 6일 "술 마신 다음날 운전으로 음주운전 판정을 받은 김기환에 대해 퇴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구단에 따르면 김기환은 10월 23일 저녁 자택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접촉사고를 냈다고 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을 실시했고 음주 반응이 나왔다. 선수의 요청에 따라 채혈 검사를 한 결과 지난 1일에 최종 음주 판정(혈중알코올농도 0.041%)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6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단순 적발 시 50경기 출전 정지, 3회 이상 발생 시 3년 이상 유기실격이었지만, 지난 6월부터는 1회 면허정지 시 70경기 정지, 3회 이상 발생 시 영구실격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따르면 김기환은 100일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된다. 구단 내부 징계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7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이행하면 된다. 그러나 NC는 아예 김기환을 방출시키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NC 관계자는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2일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받고 KBO에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신고했다. 그다음 피해자 상황 등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방출 결정을 내렸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고(故)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고, KBO에서도 강정호(35)가 3번의 음주운전 적발 후에도 복귀를 시도하다가 막힌 일이 있었다.

NC는 지난해 여름 원정숙소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건을 시작으로 올해 5월에는 코칭스태프 간 음주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NC는 이동욱 감독을 전격 경질하며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김기환은 현재 재활조에 속한 상황이다. 몸 상태를 끌어올려야 할 시기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은 구단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선수 본인도 책임을 통감했고, 결국 구단에서도 강경한 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2015년 삼성에 입단했던 김기환은 2020시즌을 앞두고 2차 드래프트로 NC 유니폼을 입었다. 그는 지난해 62경기에서 15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며 대주자로 좋은 활약을 펼쳤다. 이에 올 시즌을 앞두고는 이동욱 감독이 테이블세터 기용을 고려했다.

올해도 73경기에 출전하며 기회를 얻은 김기환은 8월 중순부터 허리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그리고 시즌 종료 후 음주운전 사고를 저질렀고, 끝내 팀을 떠나게 됐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여자 스포츠 선수 연간 수입... 골프 고진영, 118억으로 6위

[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2/11/05/BMLYPUPIJRFSLO3PIFPY7HWZ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national/people/2022/11/05/BMLYPUPIJRFSLO3PIFPY7HWZ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세인트나인, 골프 유망주 육성 위한 주니어 선수단 모집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211011438003&sec\\_id=530201&pt=nv](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211011438003&sec_id=530201&pt=nv)

태백 고지대 스포츠 훈련장 특구 2025년까지 3년 연장

<https://www.yna.co.kr/view/AKR20221103059000062?input=1195m>

우상혁, 체육기자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107/116343449/1>

대한장애인체육회, 위더피프틴(#WeThe15) 스포츠 공모전 시행

<https://isplus.com/2022/11/01/sports/sportsgeneral/20221101111406487.html>

"제2의 양학선같은 세계적인 선수 키울 것"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2110314400830632>

"학생선수 특기 살리는 교육 인프라 필요"

<http://www.jndn.com/article.php?aid=1667292513347828011>

[청소년 기고]전국체전 학생응원단 참가 후기-'하나 된 우리'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1897>

프로 좁은 문 못 넘은 '야구 미생' 재도전 기회를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8453>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